

3년 후 65세 이상 '1000만 명'

3년 뒤 한국(내국인)의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때는 고령인구 비율도 20% 선을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국인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2020년 기준 807만 명에서 2025년 1045만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고령인구는 2030년 1287만 명에 이어 2040년에는 1698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고령·초고령사회를 나누는 기준인 '총인구(외국인 포함) 중 고령인구 비중'도 2025년이면 20.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속한다. 하지만 3년 후면 20%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초고령사회에 접

어들게 된다.

65세 미만인 '일하는 사람'은 급속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583만 명에서 2040년 2676만 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0년 뒤면 노동인구가 지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내국인의 노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2020년 22.5명에서 2030년 30.6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2035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50.6명을 찍고, 2040년에는 63.4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하는 노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 리치' 평균 자산 66억”

20~40대 젊은 부자 '영 리치'의 1인당 평균 총자산이 66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한 비중은 60%였다.

13일 '한겨레'에 따르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날 '한국인 부 보고서' (Korean Wealth Report)를 펴냈다. 이에 따르면 금융 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49살 이하 '영 리치'는 1인당 1.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주거 목적 주택 외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선호한다.

영 리치의 금융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예금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주식, 머니마켓펀드(MMF)나 시장금리부수시입출식예금(MMDA) 등 단기 자산 순으로 높았다.

영 리치는 금융 자산의 4분의 1(25%)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영 리치 5명 가운데 1명은 가상자산에 투자 중이다. 50살 이상 올드 리치의 가상자산 투자 비중(5%)에 견주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같은 영 리치로 분류되더라도 자산 형성 주요 원천에



▲ 사진=shutterstock

따라 총 자산 규모에서 차이를 보였다. 상속을 받은 영 리치의 1인당 평균 총자산은 128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부동산이었다. 근로소득을 주된 원천으로 부를 축적한 영 리치의 총 자산은 상속받은 영 리치의 4분의 1 수준인 39억원 정도였다.

영 리치의 직업 면면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30%로 가장 많았지만, 의료, 법조계 전문직군이 20%로 같은 연령대 일반 대중보다 그 비율이 6배 이상 높았다.

미래 과일 지도 바뀐다



▲ 제주도 감귤 농장 모습. 50년 후에는 강원도에서도 감귤을 재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shutterstock

멀지 않은 미래에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만 사과와 배 재배가 가능하고, 사인머스켓과 같은 고품질 포도 재배가 가능한 지역도 감소할 전망이다. 대신 제주가 주산지인 감귤은 남해안과 강원도 해안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고, 단감도 중부내륙 전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6대 과일의 재배지 변동을 예측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50년 뒤인 2070년대에는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주요 과일의 재배 지역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사과는 앞으로 지속해서 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 2070년대에는 강원 일부지역에서만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와 복숭아는 2090년대에는 강원 일부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포도는 2070년대에는 고품질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감은 2070년대까지 산간 지역을 제외한 중부내륙 전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감귤(온주밀감)은 남해안과 강원 해안지역에서도 재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생산성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적응형 품종을 육성하고 권역별로 적절한 작목을 배치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새롭게 재배 가능한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열대·아열대 작물 52종(2020년 기준)을 도입해 적응성을 시험 중이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